

## 건설업계, 고비용·자금난·수급 불안 3중고에 '휘청'

광주·전남 중소건설기업 위기  
공사계약 1년새 50% 넘게 줄어  
도급순위 100위 안팎도 쓰러져  
올해 10여개 업체 법정관리 절차



26일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층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지역에서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는 중소건설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 건설업계가 살얼음판에 걸려 있다. 고공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은 물론 금융업계의 PF 감축에 따라 기업 대출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역에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회사가 하나둘 늘어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지역 중소건설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 도급순위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100위 안팎의 기업들마저 언제 자금난을 겪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조기 발주, 공공주택 불량 공급, 자금 대출 지원 등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 관련 기업들은 물론 도소매업, 음식점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하방 효과가 큰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26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정관리 절차를 받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는 10여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27위를 기록한 남양건설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법인회생신청(법정관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99위를 기록한 한국건설마저도 지난 5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새천년건설, 해광건설, 송학건설, 거승건설, 계원토건, 세움건설, 토담건설 등 지역 내 굵직한 건설업체들이 손을 들었다. 건설업계 불황은 올 1/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이 시기 광주에서 체결된 건설계약금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1분기(2조8000억원)보다 무려 5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비수도권에서 울산(-95%)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공사비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 자원의 물가변동률을 의미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올 3월 154.85(2015년=100)로 지난 2021년 124.12보다 30.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설회사가 직접 매입하는 레미콘, 철근, 단열재 '3대 자재' 가격만 보더라도 자재가 인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1㎥당 6만 8400원이었던 레미콘 가격은 최근 10만2600원으로

50% 증가했다. 철근은 t당 71만5000원에서 93만1000원(30.2%)까지 치솟았으며, 단열재 또한 30% 이상 올랐다.

건설업계는 국제적인 고공리 여파와 원자재 값 상승에, 건설업의 고질적인 인력 및 장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 운송업체가 '주 5일제'를 선언하고

과거와 달리 토요일과 일요일 작업은 거부하면서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공사는 공정에 따라 진행되는 데, 주요한 공정에 꼭 필요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주말에는 멈춰 서면서, 다른 공정마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국인의 건설 현장직 기피 현상으로, 그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작업 숙련도로 인해 공사 기간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최근엔 공공 조달 입찰에 들어가는 건설회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감을 찾기보다는 잠시 현 상황을 관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건설업체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22대 국회 7월 5일 개원식

오늘 전반기 원 구성 완료...7월 2~4일 대정부질문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다음 달 2~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6·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로써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완료된다.

7월 2~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국회 개원식은 다음 달 5일 본회의로 잡혔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식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다.

이어 8일에는 민주당이, 9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연합뉴스

## 北 탄도미사일 공중 폭발 극초음속 시험 실패 추정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26일) 오전 5시 3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250여km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km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은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올해 들어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신휘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k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으로 요격이 쉽지 않다. 북한은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에선 평소보다 많은 연기가 발생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와 경기도 파주 및 연천 지역에서도 관측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제11기 독자위원회의 ▶11면

해외문화 기행 - 스페인 가우디를 만나다 ▶16면

KIA 윤영철, 생각을 바꾸니 공이 살아났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